



요나 예언자의 기적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fny

Email : stfranciscok.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요나 3,1-5,10

[화답송] 시편 25(24),4-5ㄱ- 6과 7ㄴ- 8-9(㉠4ㄱ)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제2독서] 1 코린 7,29-31

[복음환호송] 마르 1,15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복음] 마르 1,14-20

[성가안내]

- 입당성가 [39] 하나 되게 하소서
- 봉헌성가 [474] 주여 사랑으로 하나 되게
- 성체성가 [399] 주님 안에 하나
- 파견성가 [19] 주를 따르리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 연미사 김화자 소화 데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양윤희 루시아	봉헌 김영숙 카타리나 김지영 유스티나 이영애 레지나
● 생미사 유 데이빗, 유 데니엘, 유 케이디 임 타마스 아퀴나스, 안젤라, 아론 가정 이영애 레지나, 이지훈 아네스 정희정 (새신자)	봉헌 유희순 그레이스 김경련 울리다 이지연 안나레지나 신애송 헬렌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1월 24일	장혜윤 크리스티나	이경자 울리안나	정은철 프란치스코	이경자 울리안나	
1월 31일	이지훈 아네스	민완준 필립보	장혜윤 크리스티나	민완준 필립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오전 08:35 지하 성당 고해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코로나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바치는 시편 13편]

끝이 없어 보이는 팬데믹으로 지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언제까지 마냥 저를 잊고 계시렵니까?” 라고 외칩니다.

3절에서는 “언제까지 고통을 제 영혼에,
번민을 제 마음에 날마다 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제 위에서 우쭐거리야 합니까?” 라고
물읍니다. 이런 비통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는 시편들은
우리도 고통 중에 주님께로 나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결국, 스트레스와 긴장상태가 오래 갈 때,
우리가 털어놓고 이야기 할 사람 중에
주님보다 더 나은 분이 있을까요?
우리는 질병이나 근심, 고통, 좌절, 실망,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오는 고민거리들을 하느님께 가지고 나아 갑니다.
고요한 중에 하느님 앞에 모두 다 내려 놓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은 걱정으로 가득한 의문들을
가지고 당신께 나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다윗처럼 간청과 애원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의 처지를 돌보아 주심 굳게 신뢰하여
마침내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울뜨레야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FYMN)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 오늘(1.24) 미사 후 사목협의회 있습니다.
모든 사목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성 베네딕도의 규칙서 머리말 22~32 -

만일 우리가 그분 나라의 장막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선행으로 달리지 않고는 결코 그곳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자와 함께 **“주여, 당신 장막에 묵을 이
누구오리까, 거룩한 산에 쉼 이 누구오리까?”**하고
여쭙어 보기로 하자. 형제들아, 이렇게 한 후에 우리는
당신 장막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대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

**마음속에 진리를 품은 사람이다. 그는 제 혀로 모함하지
않는 사람, 제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제 이웃에 대한 모욕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유인하는 사악한 악마를 그의 유혹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쫓아 사라지게 하고, 악마의 사소한 유혹까지도 그리스도께
매어 쳐바수는 사람이다.”**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착한 생활에 대해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선행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
자신 안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예언자와 함께
**“마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는 마시옵소서. 영광일랑
오직 당신 이름에 돌려주소서”**하고 말하는 사람이다.
또한 바울로 사도께서도 자기 설교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돌리지 않고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하시고,
또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 참조 - 성경 인용 찾아보기 : 굵은 이태리체

- 시편 14,1 14,2~3 14,4 14,5 136,7 113,9
- 1 코린 15,10
- 2 코마 10,17
- 마태 7,24. 25

[2021년 1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인간의 형제애

우리가 타종교 형제 자매들과 온전한 우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모든 이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축하합니다.

2020년 '일년 일독 성경통독' 완독하심을
축하합니다.

유희순 그레이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에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김동희(헬레나)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김용기(요셉)
정창동(폴리나)	고종호(마태오)
지군자(스테파니)	홍봉운(바오로)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정영도	

♡ 선종하신 분

1월19일-전마사자(카타리나)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주님안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시길 바랍니다.
슬픔 중에 계신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사랑 가득히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미사 안내]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 미사 :
토요일 4:00 pm

일요일 8:00 am, **9:15 am (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 평일 미사 :
월 ~ 금 7:30 am, 12:00 noon, 5:00 pm
토 11:00 am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nyc.org>

[미사참석 시 지킬 수칙]

- 마스크는 미사 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 미사 중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 (평화의 인사등)
- 봉헌 : 봉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십시오.
- 영성체 : 영성체 전에 손 세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

1월18일(월)~25일(월)은
그리스도인 일치를 간구하는 일치 주간입니다.
온세상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기도서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문" 참조)

[설 합동 위령 미사]

- 신청 : 성당 입구에서 받습니다.
- 마감 : 1월 31일

☺ 이름을 바르고 정확하게 써 주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상차림과 연도 합송은 하지 않고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